

#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잠재프로파일의 종단적 변화 및 영향 요인

연은모<sup>1</sup>, 최효식<sup>2\*</sup>

<sup>1</sup>영남대학교 교양학부, <sup>2</sup>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 Longitudinal Transition of Adolescents' Psychological Character Profiles and its Predictors in Multicultural Families

Eun Mo Yeon<sup>1</sup>, Hyo-Sik Choi<sup>2\*</sup>

<sup>1</sup>College of Basic Studies, Yeungnam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위축을 활용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의 잠재프로파일 및 전이 과정을 탐색하고, 전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2차년도(2012년)와 6차년도(2016년) 자료의 1,188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잠재프로파일분석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초등학교 시기(2차년도 자료)와 중학교 시기(6차년도 자료)의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두 시점 모두 '안정형 집단', '사회적 위축형 집단', '불안정형 집단'의 세 개의 잠재집단이 확인되었다. 둘째, 잠재집단의 전이 과정을 확인한 결과, 심리적 특성의 안정적인 양상도 나타나지만, 긍정적 변화 및 부정적 변화 또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방임적 양육태도, 부모효능감, 가족의지지, 친구의지지가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친구의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정형 집단에 계속 머무르기보다는 안정형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더 안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갖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ongitudinal transition of adolescents' psychological character profiles, which includes self-esteem,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and the predictive effects of parental efficacy, families' support, and friends' support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sample consisted of 1,188 adolescents in elementary school, who were re-examined in three years, when they were in middle school from the part of waves 2 and 6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A latent profile analysis identified three distinct profiles of psychological character among adolescents in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stable, social withdrawal, and unstable. As compared to elementary school, adolescent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tayed stable and played critical roles on the latent classes. Parental efficacy, and supports from family and friends played critical roles on the latent classes. Specifically, as adolescents perceived full of supports from friends, they were more likely to make transitions to the stable group.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are discussed.

**Keywords** : Self-Esteem,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Social Withdrawal,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Corresponding Author : Hyo-Sik Choi(Chuncheon National Univ. of Education)

email: s970218@cnu.ac.kr

Received November 21, 2019

Accepted March 6, 2020

Revised December 16, 2019

Published March 31, 2020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다문화 가정 자녀의 심리적 특성은 학교 적응 및 삶의 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다[1-2]. 이에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중요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위축 등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횡단적, 종단적 연구를 진행하였다[10, 21-23, 30]. 하지만 이들 연구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학교급에 따라 어떤 심리적 특성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이가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만약 다문화 가정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급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심리적 특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와 같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할 수 있다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건강한 심리적 특성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교육 및 사회 환경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보고되고 있는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위축을 활용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의 잠재프로파일을 확인하고, 잠재집단 간 전이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잠재집단의 전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느낌 등을 포함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자아존중감[3 재인용]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 요인이다[4]. 이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동기 및 긍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5].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 외현화 문제행동,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6-8].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부모-자녀애착,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지지, 가족건강성, 또래소외경험 등이 보고되고 있다[9-14].

청소년의 우울 수준 또한 학교생활적응, 비행,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16].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대화 수준, 친구관계 등이 보고되고 있다[17-20]. 특히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경우 차별 경험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1, 22].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애착, 가족지지, 친구지지, 사회적 지지, 또래관계 등이 보고되고 있다[2, 23-25].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특히 개인의 대처전략 및 사회적 지지가 부족할 때 나타난다[26].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경향성을 의미하는 사회적 위축[27]은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28-29].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적지지, 부모의 방임, 또래관계 등이 보고되고 있다[30-33].

선행연구와 본 연구 간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대다수 연구가 한 시점에 국한하여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기초한 잠재집단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시기별로 분류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 양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기초한 잠재집단의 종단적 전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보다 안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갖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위축을 활용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의 잠재프로파일을 확인하고, 잠재집단 간 전이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 1)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의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기초한 잠재집단은 각각 몇 개로 유형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다.
- 2)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의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기초한 잠재집단의 전이 양상은 어떠한지 확인하다.
- 3) 잠재집단 및 전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2차년도(2012년)와 6차년도(2016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다문화청소년에 대

한 객관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패널 자료이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구성된 가정의 1,188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 2.2 연구 도구

### 2.2.1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전이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2차년도(2012년)와 6차년도(2016년)의 각 4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이 4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4].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2차  $\alpha=.79$ , 6차  $\alpha=.83$ 으로 확인되었다.

### 2.2.2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전이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2차년도(2012년)와 6차년도(2016년)의 총 10문항 중 신뢰도를 저해하는 1문항을 제거한 각 9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이 4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한국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군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4].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2차  $\alpha=.84$ , 6차  $\alpha=.84$ 로 확인되었다.

### 2.2.3 다문화청소년의 우울

다문화청소년의 우울 전이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2차년도(2012년)와 6차년도(2016년)의 각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이 4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모든 일이 힘들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4].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2차  $\alpha=.91$ , 6차  $\alpha=.91$ 로 확인되었다.

### 2.2.4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전이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2차년도(2012년)와 6차년도(2016년)의 각 5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이 4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4].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2차  $\alpha=.89$ , 6차  $\alpha=.91$ 로 확인되었다.

### 2.2.5 부모의 방임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2차년도(2012년)의 7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이 4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없으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4].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77$ 로 확인되었다.

### 2.2.6 부모효능감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을 확인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2차년도(2012년)의 9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 가정 외국인 어머니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내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4].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82$ 로 확인되었다.

### 2.2.7 가족의 지지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지지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2차년도(2012년)의 7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이 4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우리 가족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4].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94$ 로 확인되었다.

### 2.2.8 친구의 지지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친구의 지지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2차년도(2012년)의 7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이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4].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96$ 으로 확인되었다.

## 2.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계획서 제출 후 승인을 받은 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https://www.nypi.re.kr/archive>)의 2차년도(2012년)와 6차년도(2016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을 위해 Mplus 7.4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해 측

정도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의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기초한 잠재집단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였다. 셋째, 잠재집단 및 전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다문화 청소년과 외국인 어머니의 특징을 2차년도(2012년) 자료에 기초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의 성별은 남자 585명(49.2%), 여자 603명(50.8%)이며, 연령은 10세 89명(7.5%), 11세 1,058명(89.1%), 12세 36명(3.0%), 13세 5명(4%)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88)

Variables	Category	N	%
Child's gender	Male	585	49.2
	Female	603	50.8
Child's age	10	89	7.5
	11	1,058	89.1
	12	36	3.0
	13	5	.4
Mother's nationality	China (Han Chinese)	83	7.0
	China (Korean-Chinese)	219	18.4
	Vietnam	32	2.7
	Philippine	307	25.8
	Japan	439	37.0
	Thailand	48	4.0
	Etc.	60	5.1

어머니의 출신국가는 중국(한족, 기타민족) 83명(7.0%), 중국(조선족) 219명(18.4%), 베트남 32명(2.7%), 필리핀 307명(25.8%), 일본 439명(37.0%), 태국 48명(4.0%), 기타 60명(5.1%)이다.

#### 3.2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의 잠재집단 수 및 특징

초등학교 시기(2차년도 자료)와 중학교 시기(6차년도 자료)의 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확인하기 위해 두 시점 각각에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에 제시되어 있듯이, AIC, BIC, SABIC, Entropy, LMR, BLRT, 분류의 질,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35 재인용] 두 시점 모두 세 개의 잠재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기(2차년도 자료)와 중학교 시기(6차년도 자료) 모두 잠재집단분류 평균 사후확률이 .84 이상으로 높은 분류 정확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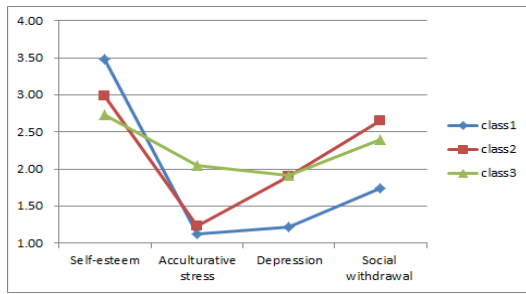
확인된 잠재집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잠재집단은 자아존중감 점수는 가장 높은 반면,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위축 점수가 가장 낮기 때문에 '안정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초등학교 시기(2차년도 자료) 536명(45.1%), 중학교 시기(6차년도 자료) 525명(44.2%)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잠재집단은 다른 잠재집단에 비해 사회적 위축 점수가 높기 때문에 '사회적 위축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초등학교 시기 450명(37.9%), 중학교 시기 489명(41.2%)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 잠재집단은 자아존중감은 낮고,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위축은 높은 특징을 보기 때문에 '불안정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초등학교 시기 202명(17.0%), 중학교 시기 174명(14.6%)이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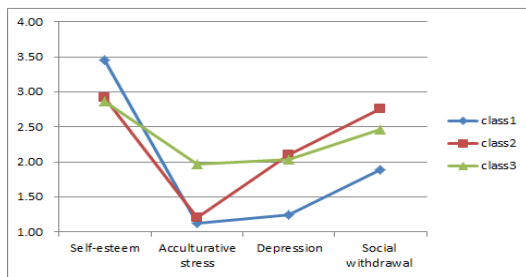
Table 2. Model Summaries for Latent Profile Models Considered for Selection

Elementary school period (2012)											
Model	AIC	BIC	SABIC	Entropy	LMR(p)	BLRT(p)	Class proportions				
							1	2	3	4	5
1	7492.997	7533.637	7508.226	N/A	N/A	N/A	100				
2	6701.826	6767.866	6726.573	.939	.0000	.0000	17.6	82.4			
3	6423.647	6515.088	6457.913	.733	.0043	.0000	45.1	37.9	17.0		
4	6289.004	6405.845	6332.789	.789	.6303	.0000	17.3	37.5	44.4	0.8	
5	6120.749	6262.989	6174.051	.904	.2332	.0000	47.0	2.6	6.5	34.0	9.9
Middle school period (2016)											
Model	AIC	BIC	SABIC	Entropy	LMR(p)	BLRT(p)	Class proportions				
							1	2	3	4	5
1	7300.350	7340.990	7315.579	N/A	N/A	N/A	100				
2	6595.437	6661.477	6620.184	.940	.0239	.0000	15.9	84.1			
3	6097.277	6188.717	6131.542	.791	.0000	.0000	44.2	41.2	14.6		
4	5925.232	6042.073	5969.016	.836	.1038	.0000	41.2	44.0	0.2	14.6	
5	5800.282	5942.523	5853.585	.800	.0057	.0000	11.2	25.4	0.2	14.6	48.6



※ Class 1: Stable group, Class 2: Social withdrawal group, Class 3: Unstable group

Fig. 1. Profile plot of elementary school period



※ Class 1: Stable group, Class 2: Social withdrawal group, Class 3: Unstable group

Fig. 2. Profile plot of middle school period

### 3.3 잠재프로파일 간 전이 확률

초등학교 시기(2차년도 자료)와 중학교 시기(6차년도 자료) 간 심리적 특성에 기초한 잠재집단의 전이 확률은 Table 3과 같다. 초등학교 시기의 안정형 집단의 경우

중학교 시기에 안정형 집단에 머무를 확률은 57.5%, 사회적 위축형으로 전이될 확률은 31.9%, 불안정형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은 10.6%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시기의 사회적 위축 집단의 경우 중학교 시기에 사회적 위축 집단에 머무를 확률은 53.4%, 안정형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은 34.7%, 불안정형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은 11.9%로 나타났다. 중학교 시기의 불안정형 집단의 경우 중학교 시기에 불안정형 집단에 머무를 확률은 31.2%, 안정형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은 29.2%, 사회적 위축형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은 39.6%로 나타났다.

Table 3. Transition probabilities from 2012 to 2016

2012	2016		
	Stable	Social withdrawal	Unstable
Stable	57.5%	31.9%	10.6%
Social withdrawal	34.7%	53.4%	11.9%
Unstable	29.2%	39.6%	31.2%

### 3.4 잠재집단 및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잠재집단 및 전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방임적 양육태도, 부모효능감, 가족의 지지, 친구의지지를 선정하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불안정형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2012년도 자료(초등학교 시기)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방임적 양육태도 수준이 낮고, 부모 효능감, 가족의지지, 친구의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

Table 4. Results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ith latent class

Variable	2012 Reference group: Class 3(unstable group)				
	Class 1		Class 2		
	b	exp(b)	b	exp(b)	
Neglecting 2012	-1.011***	.364	-.443*	.642	
Parenting efficacy 2012	.982***	2.671	.598**	1.818	
Supports from family 2012	.721***	2.056	-.095	.909	
Supports from friend 2012	1.191***	3.290	.484***	1.623	
Variable	2016 Reference group: Class 3(unstable group)				
	Class 1		Class 2		
	b	exp(b)	b	exp(b)	
Neglecting 2012	-.337	.714	-.284	.753	
Parenting efficacy 2012	.297	1.346	.313	1.367	
Supports from family 2012	-.023	.978	-.356*	.700	
Supports from friend 2012	.492***	1.635	.166	1.181	

\* p<.05, \*\* p<.01, \*\*\* p<.001

Table 5. Results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ith latent class transition

2012	2016	Variable	b	exp(b)
Stable	Stable	Neglecting	-.259	.771
		Parental efficacy	-.121	.886
		Supports from family	-.086	.918
		Support from friend	.379	1.461
	Social withdrawal	Neglecting	-.465	.628
		Parental efficacy	-.111	.895
		Supports from family	-.135	.874
		Support from friend	.067	1.069
		Neglecting	-.084	.060
		Parental efficacy	.295	.867
Social withdrawal	Stable	Supports from family	-.201	.402
		Support from friend	-.077	.134
		Neglecting	-.082	.063
		Parental efficacy	.314	1.077
	Social withdrawal	Supports from family	-.498	2.693
		Support from friend	-.113	.311
		Neglecting	-.399	.671
		Parental efficacy	.199	1.220
		Supports from family	.075	1.078
		Support from friend	.764**	2.146
Unstable	Stable	Neglecting	-.117	.890
		Parental efficacy	.516	1.675
		Supports from family	-.468	.626
		Support from friend	.213	1.237

\* p<.05, \*\* p<.01, \*\*\* p<.001

정형 집단'보다는 '안정형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임적 양육태도 수준이 낮고, 부모효능감, 친구의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정형 집단'보다는 '사회적 위축형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자료(중학교 시기)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친구의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정형 집단'보다는 '안정형 집단'에, 가족의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정형 집단'보다는 '사회적 위축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에 제시되어 있듯이, 초등학교 시기(2차년도 자료)와 중학교 시기(6차년도 자료) 간 심리적 특성에 기초한 잠재집단의 전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한 결과, 친구의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정형 집단에 계속 머무르기 보다는 안정형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위축을

활용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의 잠재프로파일 및 전이 과정을 탐색하고, 전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별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초등학교 시기(2차년도 자료)와 중학교 시기(6차년도 자료)의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두 시점 모두 세 개의 잠재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잠재집단은 자아존중감 점수는 가장 높지만,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위축 점수가 가장 낮기 때문에 '안정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초등학교 시기(2차년도 자료) 536명(45.1%), 중학교 시기(6차년도 자료) 525명(44.2%)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잠재집단은 다른 잠재집단에 비해 사회적 위축 점수가 높기 때문에 '사회적 위축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초등학교 시기 450명(37.9%), 중학교 시기 489명(41.2%)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 잠재집단은 자아존중감은 낮고,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위축은 높은 특징을 보기 때문에 '불안정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초등학교 시기 202명(17.0%), 중학교 시기 174명(14.6%)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기초한 잠재집단의 특징은 사회적 위축형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자신을 고립시키는 모습을 보이는데[27],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비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보다 사회적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사회적 위축의 심리적 특성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문화 가정 부모의 방임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36], 방임에 노출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돌봄을 위한 사회 지원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초등학교 시기에서 중학교 시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심리적 특성의 다양한 전이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시기의 안정형 집단의 경우 사회적 위축형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은 31.9%, 불안정형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은 10.6%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시기의 사회적 위축 집단의 경우 안정형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은 34.7%, 불안정형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은 11.9%로 나타났다. 중학교 시기의 불안정형 집단의 경우 안정형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은 29.2%, 사회적 위축형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은 39.6%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초등학교 시기에서 중학교 시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심리적 특성의 안정적인 양상도 나타나지만, 긍정적 변화 및 부정적 변화 또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잠재집단 구분 및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방임적 양육태도, 부모효능감, 가족의지지, 친구의지지를 선정하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 시기의 경우 방임적 양육태도 수준이 낮고, 부모효능감, 친구의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정형 집단'보다는 '안정형 집단', '사회적 위축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시기의 경우 친구의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정형 집단'보다는 '안정형 집단'에, 가족의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정형 집단'보다는 '사회적 위축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잠재집단의 전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한 결과, 친구의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정형 집단에 계속 머무르기보다는 안정형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방임적 양육태도, 부모효능감, 가족의지지, 친구의지지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10, 20, 23, 30-31]. 또한 본 연구결과는 다문화 가정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효능감, 가족의 지지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과

비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안정적인 심리적 특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5. 결론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대다수 연구가 한 시점에 국한하여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시기별로 심리적 특성에 기초한 잠재집단을 분류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심리적 특성의 어떤 전이 양상이 나타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잠재집단 및 전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보다 안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갖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 간 심리적 특성 잠재집단의 전이 과정을 살펴 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학업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고등학교 시기까지의 잠재집단의 전이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패널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잠재집단의 전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변인을 살펴볼 수 없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개인 특성 변인을 포함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풍성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D. J. Park,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Journal of Youth Activity*, Vol.5, No.2, pp.57-74, 2019.
- [2] K. R. Choi, J. Y. Ho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mediating effects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Studies on Korean Youth*, Vol.29, No.1, pp.347-374, 2018. DOI: <http://dx.doi.org/10.14816/sky.2018.29.1.347>
- [3] A. Lohbeck, F. Petermann, "Cybervictimization, self-esteem, and social relationships among German second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School Violence*, Vol.17, No.4, pp.472-486, 2018. DOI: <http://dx.doi.org/10.1080/15388220.2018.1428194>

- [4] R. F. Baumeister, J. D. Campbell, J. I. Krueger, K. D. Vohs,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Vol.4, pp.1-44, 2003.
- [5] T. Pyszczynski, J. Greenberg, S. Solomon, J. Arndt, J. Schimel, "Why do people need self-esteem?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Vol.130, No.3, pp.435-468, 2004.  
DOI: <http://dx.doi.org/10.1037/0033-2909.130.3.435>
- [6] A. R. Han, "The effect of parental life satisfaction, positive parenting, self-esteem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 comparison between low-income and ordinary-income of the household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5, No.5, pp.1-24, 2018.  
DOI: <http://dx.doi.org/10.21509/KJYS.2018.05.25.5.1>
- [7] M. H. Lim, Y. J. Park, S. H. Kim, "The affects of self-regulati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self-esteem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Journal of Korea Youth Counseling Association*, Vol.3, No.4, pp.85-103, 2018.
- [8] J. Y. Song, M. J. Park, "The influence of abuse from parents on adolescent in school life adapta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Forum for youth culture*, Vol.43, pp.57-84, 2015.  
DOI: <http://dx.doi.org/10.17854/ffyc.2015.07.43.57>
- [9] B. S. Jung, "An analysis of the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adolescent self-esteem", *Studies on Korean Youth*, Vol.21, No.4, pp.5-30, 2010.
- [10] S. A. Nam, J. S. Baik,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on school adjustment and self-esteem of child and early adolescent from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Vol.9, No.1, pp.3-12, 2011.
- [11] Y. O. Nam,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 on intention of school dropout in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18, No.4, pp.251-274, 2016.  
DOI: <http://dx.doi.org/10.19034/KAYW.2016.18.4.11>
- [12] M. S. Suk, Y. G. Ku, "The effects of family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of the adolescent: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Welfare*, Vol.17, No.1, pp.55-74, 2015.
- [13] Y. J. Nam, T. Y. Park,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family strengths and school adapt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6, No.4, pp.47-71, 2009.
- [14] B. D. Sohn, "The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peer isolation, and religion on adolescent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4, pp.131-148, 2016.  
DOI: <http://dx.doi.org/10.21509/KJYS.2016.04.23.4.131>
- [15] J. A. Yu, W. J. Kim, "The effect of depression on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The moderating role of gender", *Studies on Korean Youth*, Vol.29, No.3, pp.241-273, 2018.
- [16] C. S. Kim, "The effect of depression, stress coping, and hardiness on delinquency i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12, No.3, pp.587-598, 2007.
- [17] W. Y. Kim, B. E. Seo, K. S. Kim, "The effect of overprotective parenting, ego resilience, and social withdrawal on depression among Korean Youth", *Forum For Youth Culture*, Vol.51, pp.41-69, 2017.  
DOI: <http://dx.doi.org/10.17854/ffyc.2017.07.51.41>
- [18] H. J. Lee, "Parental maltreatment and adolescent depression and anxiety: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of emotion understanding and emotion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4, No.9, pp.457-483, 2017.  
DOI: <http://dx.doi.org/10.21509/KJYS.2017.09.24.9.457>
- [19] Y. L. A. Song, J. J. Kim, "Economic hardship,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A longitudinal approac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0, No.5, pp.131-155, 2013.
- [20] M. E. Schmidt, C. L. Bagwell, "The protective role of friendships in overtly and relationally victimized boys and girls", *Merrill-Palmer Quarterly*, Vol.53, pp.439-460, 2007.  
DOI: <http://dx.doi.org/10.1353/mpq.2007.0021>
- [21] J. H. Yu, S. Y. Hwang,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s on the depression of adolescent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ime of parent-child conversation",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20, No.4, pp.169-193, 2018.  
DOI: <http://dx.doi.org/10.19034/KAYW.2018.20.4.07>
- [22] S. G. Lee, H. S. Park, Y. H. Rho, C. W. Rhee, "The mediated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cultural capital on school adaptation for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s of positive self-concep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38, pp.235-264, 2012.
- [23] S. M. Eun, S. H. Lee, K. Y. Lee, "Acculturative stress amongst multicultural adolescents: Patterns, predictors, and psychosocial outcomes", *Studies on Korean Youth*, Vol.30, No.2, pp.177-211, 2019.  
DOI: <http://dx.doi.org/10.14816/sky.2019.30.2.177>
- [24] M. J. Kim, K. B. Yun,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mediating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ego-resiliency", *The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Vol.13, No.1, pp.373-388, 2018.
- [25] M. Jeong, "The mediated effects of ego resilience among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peer relation, and acculturation stress for middle school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9, No.4, pp.1455-1470, 2018.



- [26] D. L. Sam, J. W. Berry, "Acculturation when individuals and groups of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meet",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Vol.5, No.4, pp.472-481, 2010.  
DOI: <https://doi.org/10.1177/1745691610373075>
- [27] K. H. Rubin, R. J. Coplan, "Paying attention to and not neglecting social withdrawal and social isol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Vol.50, No.4, pp.506-534, 2004.
- [28] I. Y. Jeong, "The influence of parental abuse on adolescence's school adjustment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and mobile phone addic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Vol.56, pp.103-130, 2018.
- [29] W. K. Lee, K. B. Yun, B. K. Park, H. S. Doh, "The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parents' over-control, and sense of community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Vol.16, No.2, pp.205-217, 2018.
- [30] S. H. Mo, "Influences of acculturation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social withdrawal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Moderating effects of teacher and peer-friend factors", *Forum For Youth Culture*, Vol.54, pp.67-93, 2018.  
DOI: <http://dx.doi.org/10.17854/ffyc.2018.04.54.67>
- [31] C. J. Chang, H. W. Yang, "The effects of parental neglect on middle school students' mobile phone dependency: Mediating roles of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31, No.2, pp.133-156, 2015.
- [32] J. H. Shin, H. A. Kang,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on children's social withdrawal: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44, pp.1-22, 2018
- [33] B. S. Park, S. W. Bae, K. J. Park, M. K. Seo, H. J. Kim,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social withdrawal,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7, No.2, pp.72-101, 2017.  
DOI: <http://dx.doi.org/10.15709/hswr.2017.37.2.72>
- [34] <https://www.nypi.re.kr/archive>
- [35] E. M. Yeon, H. S. Choi, "Exploring the latent profiles in self-esteem, self-efficacy, and acceptance toward disability of the disabled to life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3, pp.133-152, 2019.
- [36] N. M. Hong, H. J. Park,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in the inflence of parents' neglect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Future Social Work Research*, Vol.8, No.2, pp.125-151, 2017.

연 은 모(Eun Mo Yeon)

[정회원]



- 2007년 5월 : 버지니아 주립대 (Univ. of Virginia) 국제관계학 학사
- 2009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방법 석사)
- 2014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진로상담, 실수기반학습, 학습동기

최 효 식(Hyo-Sik Choi)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심리검사, 학습전략, 부모-자녀 관계